



My journey from the slag hills of Pittsburgh coal country to Seton Hill in Greensburg, started out simply. Though my father worked in retail, we come from Polish and Slovenian coal miners. Growing up in Crafton, we attended St. Philip Parish. My three sisters and I were graced with a good and stable family. My family and friends were surprised that I planned to interrupt my studies at Indiana University in my senior year. However,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in August 1967.



My first assignment was Mt. Pleasant, teaching grades 5-8. After a BA in Psychology, I completed a Masters in Religion at Boston College and worked as Director of Religious Education in several parishes in Pittsburgh and Greensburg.



After a year at a house of prayer working with women in abusive relationships, Sister Baptista suggested pastoral ministry in Preston County, WV. I served five little parishes. As a Catholic and non-native West Virginian, I was a minority. I earned a Masters in social work and learned the human meaning of poverty driving through the “hollers.” I took Communion to the homebound, worked at our two second hand stores. We prepared for fire season, usually beginning the first cool night and often due to chimneys needing repair. I learned to drive roads with no markers looking for people

needing assistance. I became an organist for three parishes and a funeral organist whenever there was a need. I helped organize revivals and worked with ministers to begin a volunteer chaplain program in our little local hospital.



At Catholic Charities West Virginia, I led strategic planning, took the introductory course for centering prayer and taught it. My main focus remained poor pregnant moms and their babies. The idea for the Gabriel Project took root, looking for a way to help our moms and to invite different congregations to share the outreach. It continues today as a state wide ecumenical effort serving women and families in need from before birth to around 3 years. The Project began with three congregations and grew to 23 counties.



Now I am home at Seton Hill. From the slag hills of Moon Run to the mountains and hills of West Virginia and Seton Hill with new opportunities to learn and be of service.



석탄의 고장인 피츠버그의 척박한 언덕으로부터 그린스버그의 씨튼힐 언덕으로의 저의 여정은 단순하게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는 소매업을 하셨지만 우리 가족은 폴란드와 슬로베니아의 광부 출신이었지요. 저는 크래프톤 (Crafton)에서 자라면서 성 필립(St. Philip) 성당에 다녔습니다. 우리 네 자매는 안정되고 훌륭한 가정이라는 축복 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인디애나 대학교 (Indiana University) 4 학년 때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저는 1967년 8월 수녀회에 입회했어요.



저는 첫 파견을 마운트 플래즌트(Mt. Pleasant)로 받아 5 학년에서 8 학년을 가르쳤어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후에 보스턴 칼리지 (Boston College) 에서 종교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피츠버그와 그린스버그의 본당에서 종교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기도의 집에서 1년 동안 학대받은 여성들과 함께 일하고 난 후, 바티스타 수녀님(Sister Baptista)은 저에게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프레스턴 카운티(Preston County, WV)에서 본당사목을 하도록 제안하셨지요. 그래서 그 곳의 다섯 개 작은 본당에서 봉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저는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이 아닌 가톨릭인으로 소수자에 속했습니다.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받았고, 빈민가를 지나며 가난의 인간적 의미를 배웠고 가정으로 봉성체를 하고 중고물품 가게 두 곳에서 일도 했어요. 군불을 피워야 하는 계절이 시작될 때는 아직 수리를 하지 못한 굴뚝 때문에 추위에 떨며 밤을 보냈지요. 또 아무 주소도 없는 길을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다니는 법도 배웠어요. 세 군데 본당에서 오르간을 연주했고 필요한 때면 장례식에서도 오르간을 연주했어요. 그리고 기도모임을 만드는 것도 도왔고 작은 지역 병원에서 신부님들과 함께 일하며 병원사목 봉사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가톨릭 카리타스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향상기도 소개과정을 맡아 가르쳤어요. 저의 주요 관심은 가난한 임산부와 아기들이었지요. 엄마들을 도와주고 다른 수도회를 초대하여



함께 외부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가브리엘 프로젝트(Gabriel Project)가 그 뿌리를 내렸어요. 지금은 세 살 이하의 아이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과 가족들에게 봉사하는 주 전체의 교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칼 활동의 일환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집은 씨튼 힐이지요. 피츠버그의 척박한 문런(Moon Run) 언덕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의 산과 언덕들 그리고 씨튼힐 언덕까지 이 모든 곳은 배우고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가득 찬 곳이었어요.